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이 민 선[†]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Power and Aesthetic Images in Men's Fashion

Min Sun Lee[†]

Full-time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 Myung University

(2002. 8. 12. 접수: 2003. 3.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masculinity as a shifting concept, stemming from the process of power groups controlling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of human beings to diffuse their ideologies, and to examine how masculinity has been reflected in aesthetic images in men's bodies and fashion. A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literary research and demonstrative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of pictures and photos were undertaken. Emerging in the wak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9th century, the absolute powers such as the bourgeois elite, males and the Wes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ason, and made aesthetic images such as authority, robustness and modernization in men's fashion. In the conversion to the Information Society, powers horizontally spread out over society. By using non-reason, diverse power groups have broken down traditional masculinity and express diverse aesthetic images in men's fashion such as eroticism, multi-culturalism and liberation.

Key words: authority(권력), eroticism(관능성), liberation(해방성), modernization(근대성), multi-culturalism(다문화성).

I. 서론

최근 패션에는 수많은 남성 이미지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성을 대변하고, 권력을 과시하는 전통적인 남성성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면, 노출이나 장식적인 패션을 통해 관능적인 매력이 강조되기도 하고, 어린 소년 같은 나약한 모습이 여성에게 인기를 끌기도 한다. 또한 남성적 특

질이 여성적 특질을 찾아보기 힘든 중성화된 패션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현대 남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정의는 동시에 수많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스타일로 남성 이미지를 단언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변화 가능한 관념적 개념이며, 특히 남성 패션에 표현된 아름다움은 특정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¹⁾을 가진 집단이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상적인 남성미에 관한 개념을 표현하고 유포

[†] 교신저자 E-mail: minsun@sangmyung.ac.kr

1) Foucault는 현대 사회의 권력이라 개인에 대한 앎을 매개로 하여 그들에 대한 통제와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군주 권력과 구별하여 인간 제어 권력(bio-power)이라고 부른다. 강건욱, "미셀 푸코가 제시한 인간 제어 권력의 정보 사회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7.

하는 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를 각자는 이상적인 남성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 집단이 그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이미지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광고 사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학습시킴으로써, 이를 대중들이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생활을 통해 확인되고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의 패션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이를 형성해온 권력의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미적 이미지를 권력 집단이 만들어내고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학습시킨 하나의 지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권력 집단이 만들어진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유포하기 위해 대중의 본성을 어떻게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는가를 고찰함으로써, 남성의 미적 이미지의 내적 가치와 조형 양식을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권력은 미적 이미지 형성에 어떻게 관계하는가?
- (2) 권력은 미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통제하는가?
- (3)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사회 변화와 함께 권력 구조가 절대 권력에서 권력 해체로 전환되면서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는 가치와 형식면에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생산 수단의 변화가 새로운 권력을 등장시킨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입장과 권력(power)은 지배 권력(pouvoir)뿐만 아니라 역능(puissance)을 포함한다는 Negri의 개념, 인간의 본성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분석한 Freud 및 무의식적 욕망의 사회화를 논의한 Lacan의 시각을 취함으로써 다원주의적인 방법으로 남성의 미적 이미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함으로써 지식 즉 아름다움을 생산하고 유포해야 한다는 Foucault의 권력 이론을 적용하

여 남성 패션이 획일적인 것에서 다양화해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남성의 몸과 패션에 나타난 미적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역사 문헌, 미술사 문헌, 실물 의상, 회화·조각·사진 등의 미술 작품, 현대 패션 잡지 등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범위로는 공업화에서 정보화라는 생산 수단의 변화와 함께 권력 양상의 변화가 확인되었던 19세기초부터 2000년까지로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공업화에 따른 획일적인 남성 이미지의 출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8세기 남성 패션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였음을 밝힌다.

II. 권력과 미적 이미지

본 장에서는 미적 이미지를 인간을 둘러싼 환경 즉 사회 경제 구조에 따라 새로운 생산 수단을 획득한 이들이 권력 집단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권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여 만들어내고 유포한 지식으로 보고, 그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권력과 미적 이미지의 창조

John Berger는 그의 저서 「이미지(Ways of Seeing)」에서 '이미지'란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미지란 대상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X가 어떻게 Y를 보았는가 하는 의미의 대용(代用)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이미지란 각 시기마다 당시의 남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Foucault가 모든 의미는 특수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담화 속에서 형성되며, 변하지 않으며 어느 곳 어느 때나 적용되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된다²⁾. Foucault의 시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행위의 주체는 권력⁴⁾이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회적 상호 작용은 권력 관계를

2) John Berger, *Ways of Seeing*, 편집부(역), *이미지* (서울: 시각과 언어, 1990).

3) 김정란, "푸코 권력 이론의 여성 해방적 함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1.

포함하며, 모든 종류의 규율적 행동은 권력의 작용을 나타낸다. 즉 권력은 지식을 낳고, 그러한 지식은 규제적이며, 통제적이며, 결국 권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은 불가피하게 저항을 수반하며, 혁명을 낳아 또 다른 권력을 창출하며, 이에 따라 또 다른 지식이 생성되고 권력을 수행한다. 따라서 권력이 바뀌면 지식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규준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Foucault는 인간 신체가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임을 그리고 지식이 형성되는 대상임을 보여준다. 미세하게 사회에 퍼져 있는 권력은 지식과 연계하여 인간의 신체를 통제한다. Foucault의 저서 『감시와 처벌』은 권력, 지식, 육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몸을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로서 제시한다. 그는 신체의 행동 범위를 잘게 부수고 규제하는 여러 가지 상호 연결된 기제를 통해 순응적인 신체가 만들어지는 것에 주목했다. 또한 그는 '인간이 육체들을 소비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지식의 대상이 되게 하는 권력을 분석의 초점에 맞추었다'⁵⁾.

그리고 이는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행위와 신체뿐 아니라 마음과 의도까지 만들어 낸다⁶⁾. 자연스러운 것, 익숙한 모든 것이 권력의 효과인 것이다.

권력이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나 지식의 차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권력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만큼 생산적이다. '웃을 벗어 던져라', '날씬한 몸매가 보기 좋다' '햇볕에 그을린 보기 좋은 피부' 등의 광고 문구는 좋은 예가 된다⁸⁾.

따라서 국가 기구에 집중되어 있던 종전의 권력 개념을 일상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는 Foucault의 논의와 그의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은 남성 패션의 성립과 확산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개념이다.

2. 인간 본성의 활용과 미적 이미지의 확산

Foucault가 권력을 억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권력이 강제나 배제 또는 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효과를 발휘한다면 권력이란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것이 되기 때문이다. 권력은 금지나 부정이 아니라 쾌락을 유도하고 지식을 형성하며, 담화를 만들어낸다⁹⁾.

Liotard에 의하면, 진정으로 제도를 변혁시키는 것은 욕망이다. 즉 욕망의 표류가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¹⁰⁾. 권력 집단들은 인간에게 욕망을 이끌어내고 미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이를 신체와 패션 위에 표상함으로써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파시킨다.

Nietzsche 역시 충동이나 의지와 같은 인간의 내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함으로써, 힘들의 관계의 성립과 해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¹¹⁾. 따라서, 권력 집단의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 남성의 미적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형성하는 인간의 충동이나 의지와 같은 인간 본성의 작용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Foucault는 지배 관계에 여성이 어떻게 함축되어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는 중세기에 광인들은 갇히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지니고 있었고, '현명한 마보'라는 개념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심지어 18세기

4) 네그리(Negri)는 권력(power)을 지배권력(pouvoir)과 역능(puissan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Pouvoir'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끌어 모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puissance'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그것에 기초해서 다양하게 무엇인가를 하려는 흐름, 그런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거론되는 권력은 지배권력 뿐만 아니라 역능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권력이다.

5) 이광래, *미셀 푸코* (서울: 민음사, 1995), p.205.

6) *Ibid.*, p.3.

7)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New York: Pantheon, 1980), 홍성민 (역), *권력과 지식* (서울: 나남, 1991), p.88.

8) *Ibid.*, p.86.

9) *Ibid.*, p.152.

10) 이광래, *op. cit.*, p.57.

11) 박시찬, "미적 원리로서의 권력에의 의지에 관한 연구-자아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ii.

만 해도 광인들은 여전히 그들 나름대로의 힘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 이성과 비이성 사이의 대화는 깨어진다. 19세기 새로운 권력 집단이 강요한 이성은 전통적인 남성상을 형성하였으며, 비이성적인 것은 억압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Foucault는 이성에서 잃고 있는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혹은 광기에 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 이후 20세기 후반 등장한 다양한 권력 집단들은 무의식에서 그들의 저항의 근거를 찾았고, 전통에 반하는 새로운 남성 이미지를 내세우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성과 비이성, 의지나 충동, 의식과 무의식은 전통적 남성성의 형성 및 붕괴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남성의 미적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II.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각 시기마다 출현하는 권력 집단은 이상적 남성성을 만들어 내고, 인간의 본성을 통제하여,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확대된 남성성은 남성의 몸과 패션에 미적 이미지로 표현된다. 따라서 권력이 변화하면, 남성미 역시 변화한다.

본 장에서는 19세기 산업 사회 도래와 함께 형성된 부르조아라는 절대 권력이 만들어 내고 유포한 패션 현상과 20세기 후반 정보 사회에서 절대 권력이 해체되고, 이들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동양 및 아프리카, 여성, 하위 문화 집단 등이 문화의 주제로 부상하면서 변화한 남성 패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남성 패션이 다양화되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양, 남성, 엘리트라는 절대 권력과 이들에 의해 억압받았던 동양 및 아프리카, 여성, 하위문화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따

라 이미지를 범주화하고, 다양한 잡지나 인터넷 상에서 얻는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조형 양식을 형, 색채, 소재, 문양, 장식, 자세, 상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산업 사회의 절대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의복은 권력이 상정한 남성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개인의 정체감을 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도구로 이용된다. 남성들은 권력이 만들어낸 성 개념과 일치한 복식이나 혹은 불일치한 복식을 공적으로 착용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에 저항한다.

현재의 남성 패션의 캐주얼화, 여성화 등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경우에 남녀가 같은 복식을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산업 사회의 남성, 서양, 엘리트 계급이라는 절대 권력이 만들어 낸 남성성에 관해 우리가 얼마나 강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1) 절대 권력과 남성성

19세기 유럽에서는 산업 혁명에 의해 새로운 생산 수단을 소유한 부르조아 계급이 권력층으로 부상하였고, 이들은 경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부장 제도를 강화하여, 남성을 생산 영역에, 여성을 가정에 머무르게 함으로써¹³⁾ 남녀의 차별적인 구조를 이루었다. 또한 기계 생산 제품의 원료를 획득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식민 정책을 만들었다¹⁴⁾. 서구는 이러한 사회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심리적으로는 초자아를 통해 사회의 이상을 강요하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정책에 유리하게끔, 있어야 하는 대로 보게 함으로써 현실을 왜곡하였다¹⁵⁾.

인간의 본성을 형성하는 정신 구조 층 중 하나인 초자아는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권력 집단에 의해 고무되었다. 초자아는 현실적이라기

12) Madan Sarup & Chung-ying Cheng, 임현규 (역), *데리다,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입문적 안내* (서울: 인간사랑, 1992), p.67.

13) John Tosh, "What should historians do with masculinity? Reflection on the 19th century Britain", *History Workshop Journal*, (1994), pp.186-187.

14) Anthony Brewer,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A critical survey*, 임홍철 (역),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서울:사계절 출판사, 1982), pp.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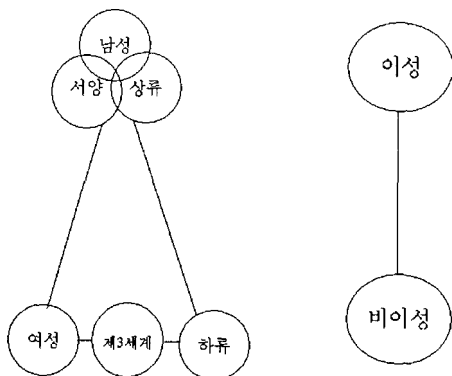
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대표하며 전통을 이루고 이를 계승하게 한다. 그래서 현실이나 쾌락보다는 완전성을 지향한다¹⁶⁾. 따라서 초자아는 완전성을 지향하기 위한 자아 이상을 설정하게 된다. 이 시기의 금욕주의적 이상은 초자아를 강조하여, '이성'이라는 이름을 지닌 하나의 충동이 정점을 차지하는 충동들의 지배 형태를 영구히 고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모든 여타의 충동들을 거부하고, 이러한 충동들에 의한 세계의 무한한 해석 가능성, 인식 가능성을 거부해 왔다¹⁷⁾.

이와 같이 남성, 상류 계층, 서양이라는 절대 권력이 형성한 이성이 강조된 남성성은 19세기 산업 혁명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절대 권력과 남성의 몸

절대 권력이 형성한 남성 신체에 관한 사고는 19세기에 서구 산업 사회가 신체에 사회 생물학과 현대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정신적·육체적 힘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백인종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그들의 제국주의적 정책을 정당화

<표 1> 절대 권력과 인간 본성에 관한 수직적 사고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¹⁸⁾. 따라서 당대의 아름다움에 관한 모든 연구는 그리스 예술을 중심에 놓는다. 당대의 아름다움에는 무언가 마술적인 것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 미술에 대한 전통이 확립되고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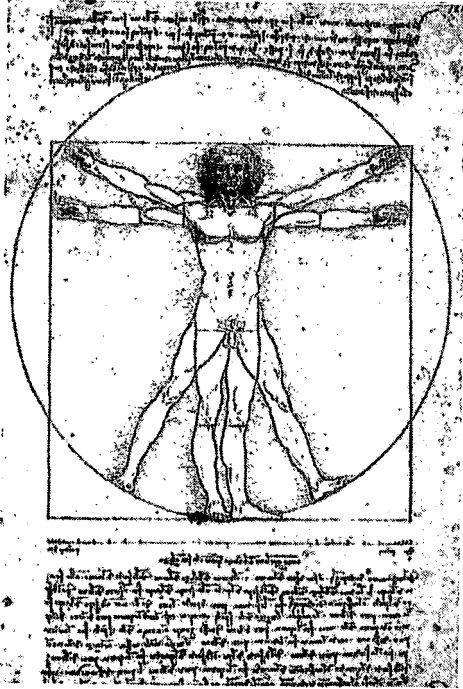
성인 남자의 누드는 신화와 전설 또는 고대 세계와 관련된 주제로 구성된 작품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다¹⁹⁾. 19세기 들어 남성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고대의 조각상을 모델로 하는 넓은 어깨와 근육이 잘 발달된 가슴으로부터 점차 가늘어져 날씬한 배와 가는 허리에 긴 다리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²⁰⁾. 이러한 인체미는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뿐 아니라 가장 존엄하고 기본적인 형태로 간주되는 이성이라는 부르조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Leonardo da Vinci의 'Vitruvian Man(비트루비우스의 비례체계를 따른 남자의 모습)'에서 남자의 모습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팔과 다리를 붙이고 서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이 방식에 따르자면 이러한 이상적인 인체 비례는 원과 사각형이라는, 완전한 형태의 차원들을 나타내준다. 'Vitruvian Man'은 미술이 규정하는 바 인간의 신체라는 완벽한 형상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 되어 왔고, 이는 산업 사회에서 이상적 미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²¹⁾(그림 1).

19세기 서구 남성들은 가부장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남녀의 차이를 강조해야 했고, 따라서 생식 기관의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생식 기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남근을 신비화시켰으며, 남성들이 갖는 강건성의 핵심으로 숭배하였다.

남성의 몸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과 상상, 현실과 신화와의 괴상한 괴리를 피하기 위해 남근을 감추는 한편 대체물을 써서 남성다운 힘을 암시하는 방법이 자주 쓰인다. 울퉁불퉁한 몽둥이나 말, 총, 그

15) Calvin S. Hall,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지경자 (역),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서울: 홍신문화사, 1993), p.46.
 16) *Ibid.*, p.41.
 17) 박시찬, *op. cit.*, p.ii.
 18) Nicholas Mirzoeff, 이윤희, 이필(역), *바이스케이프*(서울: 사각과 언어, 1999), pp.57-58.
 19) William Ewing, *The Body* (London: Thames & Hudson, 1994), pp.60-64.
 20) Ann Hollander, *Sex and Suit* (N.Y.: Alfred A. Knopf, 1994), p.95.
 21) Nicholas Mirzoeff, *op. cit.*,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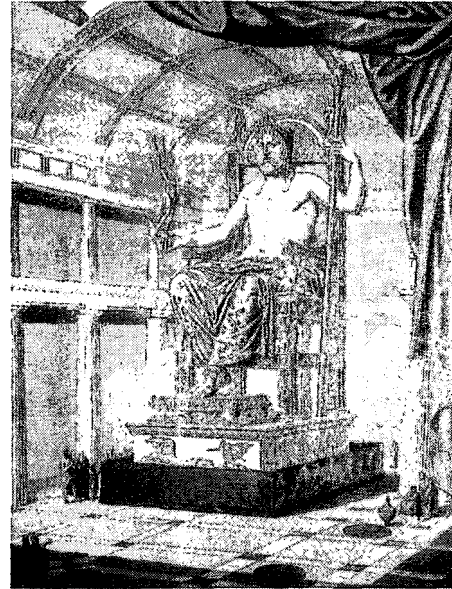


〈그림 1〉 Vitruvian Man(1487~90).
The Body in Sculpture(1998), p.62.

리고 뭉뚱하게 긴장된 근육, 주먹 쥔, 손, 불룩해진 근육, 꽉 다문 턱 등 남근을 상징하는 수많은 보조 도구들이다²²⁾(그림 2).

서양의 원근법적 인식은 세계의 중심은 단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²³⁾이었으며, 서양 제국주의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은 식민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과 완전히 다르고 훨씬 우월하다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데에 이용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서구인들은 그리스 미술을 인종 과학의 예증으로 즐겼으며, 미의 절대적 기준으로 추앙하였다. 파시즘에 이르러서는 유기적 단일체를 강조하여 비아리안계 종족을 말살하는 참상을 낳았으며, 또한 절대 권력자의 신격화된 정치적 신체를 만들어내었다(그림 3).

절대 권력은 서구적 체형을 기본으로 하고, 자연



〈그림 2〉 올림피아의 제우스(1815).
The Body in Sculpture(1998), p.115.



〈그림 3〉 수상 경기와 파시즘적 신체(1936).
Art & Propaganda in 20th century(1997), p.9.

과 대치되는 문명의 기획자로 가져야 할 이성을 신체에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여성과의 차별을 가시화하기 위해, 신체 자체가 보여주는 성의 모호성을 타파하고자 남근을 신비화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남성의 신체는 완전한 신체로

22) Sarah Kent, Jacqueline Morreau, *Women's Images of Men*, 정소영 (역),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 이미지* (서울: 삼신각, 1996), p.145.

23) John Berger, *op. cit.*, pp.36-38.



〈그림 4〉 18세기 궁정 복식(1815).
The Art of Dress(1996), p.136.

서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

3) 절대 권력과 남성의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공업 사회가 도래하고 시민 계급이 실권하는 18세기까지 궁정 스타일은 주도적 예술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18세기말에 이르면 궁정 중심의 예술은 더 이상 문화를 생산해내는 중심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며, 부르주아의 가치 체계가 자리 잡게 된다. 이때 귀족 계급은 시민 계급에게 완전히 밀려나며 장식 대신에 표현을 추구하는 취미상의 변화가 명백하게 된다²⁴⁾.

주도권의 이양의 움직임은 복식에서도 일어났다. 18세기 전반에 걸쳐 프랑스의 화려한 궁정 복식은 여전히 사회에서 통용되었다. 〈그림 4〉에서 보여지듯이 화려한 수로 장식된 Habit à la Française(아비

아 라 프랑세즈)라고 불리는 고급 견 직물로 된 코트와 베스트를 착용하고 머리에는 흰색의 파우더를 뿌리는 것이 일반적인 남성의 차림이었다²⁵⁾. 남성복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18세기말까지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궁정 복식의 경우 19세기 초반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르면 화려하고 공선적인 프랑스의 궁정 복식의 경향과 상치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난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그 시대의 부르주아 성장과 관련되었다²⁶⁾. 중류 계급의 부르주아 문화는 본질적으로는 ‘지배하는 남성성’의 문화로 남성은 문화의 독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남성의 본성은 신체가 아닌 그들의 이성에 주어졌다²⁷⁾. 예전의 남성복에서의 장식성은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압제와 폭정의 상징으로 전락하고²⁸⁾ 검소하고, 허세없는 복식이 남성을 지배하였다.

산업 사회의 산물인 남성의 수트는 권위적이며, 강건한 남성성을 표현하고 있고, 근대미의 표상이 됨으로써 절대적인 가치를 발휘하여 왔다. 이와 같이 중심적 사고는 남성 패션에서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이라는 미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남성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트의 내부는 선은 전체적 구조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강조되지 않은 형태로 표현됨으로서 수트는 장식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형태임을 표명하였다. 수트는 전혀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차림을 표방하였으며, 복식에서의 장식적인 면보다는 의복의 재료의 질과 맞춤새에 더욱 체중하였다.²⁹⁾ 수트의 색채는 남성을 문화의 기획자로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산업화된 도시의 철제 풍경과 공장의 연기 등을 상징하는 검은색 혹은 어두운 회색에 가까운 무채색이 주로 이용되었다. 대도시의 공기는 공장에서 나온 매연으로 매우 더러웠으며, 밝은 색의 의복은 자주 갈아입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되었다³⁰⁾.

24) A. Hauser,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편 下, 염무웅, 반성완 (공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4),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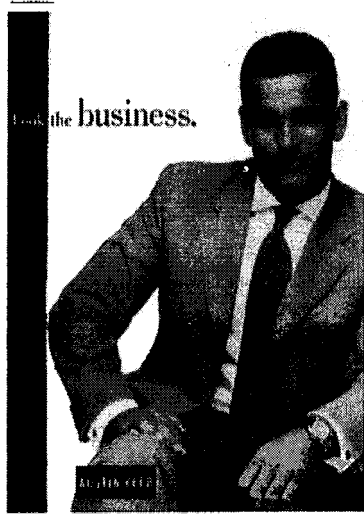
25) J. Ashford, *The Art of Dress*, (N.Y.: Abrams Inc., 1996), p.136.

26) 이정민, “19세기 남성복에 나타난 댄디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14.

27) 김정선, “빅토리아 시대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p.13-22.

28) Valerie Steel, *Fashion and Eroticism*, (Oxford: Oxford Press, 1985), p.52.

29) Moers E., *The Dandy: Brummell to Beerbohem*, (London: Secker & Waburg, 1960), p.62.



〈그림 5〉 남성의 권위를 표현하는 수트(1999).
Men in the Mirror(1997), p.85.



〈그림 6〉 강건함을 상징하기 위한 장신구들(모자, 넥타이, 우산)(1938). *Fashion for Men*(1985), p.127.

수트에 사용되는 면, 마, 양모 등의 자연 소재는 남성이 자연의 정복자임을 상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³¹⁾. 수트의 문양은 주로 스트라이프 혹은 두드러지지 않는 체크나 헤링본 등 직선을 이용하는데 이는 남성의 이성 중심적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남성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사진이나 그림에서 남성의 시선은 항상 관람자를 당당히 응시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그림 5).

남성의 가부장으로서의 강건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수트는 전체적으로 어깨와 가슴을 강조한 형태를 갖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남근을 과시하기 위해 바지를 착용하는 형태가 기본이다. 이 시기의 남성의 아름다움은 '힙'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남성은 강하게 발달한 가슴과 어깨를 가져야 했다³²⁾. 남성의 바지는 남성다운 힘과 활동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한 디자인이다³³⁾. 그러나 길어진 자켓으로 가려진 남근을 대체하기 위하여, 넥타이가 고안되었으며, 이는 수트의 대표적 장식적 요소가 되

었다. 챙이 딱딱한 모자, 지팡이, 우산, 자동차 등 역시 남근을 신비화 하는 보조 도구들이다(그림 6).

수트는 서구적 근대미의 표현 원리인 사실적 표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남성복은 전체적인 인체 구조를 바탕으로 디자인되어 왔으며 그 형태의 형식은 인간의 실제 모습에서 비롯되었다³⁴⁾. 고대 그리스의 예술 작품은 관습적으로 남성을 누드로 표현하였다. 18세기 말의 영구 재단사들은 고대의 남성 누드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의 한 방식으로 2차원적 조형성을 갖는 착장 상태의 누드를 재창조해냈다³⁵⁾. 수트의 입체적 구성 및 관절에 따른 부분 제작과 각 부분의 합체로 이루어진 외양은 (그림 7) 착용자가 어떠한 동작을 취하더라도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형태이며, 신체와 의복 간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동작 후에도 인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서구인들은 수트를 야만인의 복식과 구별되는 형태로 과시하고, 근대성의 표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은 패션 모델들의 대부분이 서양인

30) P. Byrde, *Nineteenth Century Fashion* (London: B.T. Batsford, 1992), p.98.

31) Anne Hollander, *Sex and Suit*. (N.Y.: Alfred A. Knopf, 1994), pp.108-109.

32) Valerie Steel, *op. cit.*, p.102.

33) Horn &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189.

34) Anne Hollander, *op. cit.*, p.96.

35)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Y.: Avon Books, 1975), p.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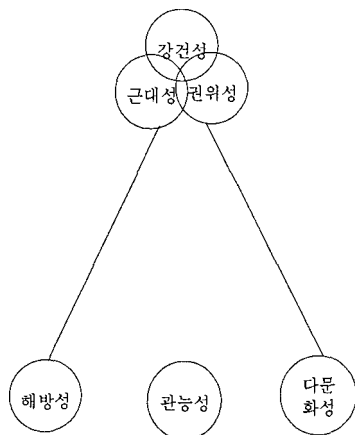
<그림 7> 수트 제작 과정(1847). *The Men of Fashion*.

인 것 역시 서구화가 곧 근대화 라는 서구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정보화 사회의 권력 해체와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에 출현한 다

<표 2> 절대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의 수직적 구조



양한 권력 집단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19세기 산업 혁명 이래 20세기 전반까지 절대 권력을 형성해 왔던 남성, 서양 제국, 부르주아 엘리트와 이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장 치명적인 억압을 받아왔으며, 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 힘이 부각되기 시작한 여성, 동양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제 3세계, 청소년, 게이, 하류 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이 남성 패션에 표현한 이념과 조형 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권력 해체와 남성성

1970년대의 저항의 형태들은 인종, 민족, 지역적 저항들, 반핵 운동, 생태계보호 운동 등과 더불어 여성운동, 게이 해방, 반정신병, 감옥개혁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⁶⁾.

그들은 정권을 전복시켜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기 보다는 소외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했는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자본주의의 착취 상황 하에서의 만민에 대한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에 의한 자주적인 관리와 모든 사회 활동에서의 창조적인 역할이었다.

Negri가 사회를 인식하는 데에 사용한 '지배 권력'과 '역능'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잘 요약하고 있다³⁷⁾. 현재의 권력은 국민을 통치하는 '지배 권력'이 아닌, 대중의 '역능'에 기초한 권력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Negri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는' 사회상을 넘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살고 실험하고 투쟁함으로써 매일 새로운 생성(창조)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³⁸⁾.

20세기 후반 사상가들은 서구식의 이성어 세계(다른 인간들과 자연)를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놓음으로써 지배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경고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반 합리성의 소지는 오랜 역사와 함께 내재해 있었다. 단지 19세기에 이르러 잠시 억압되고 감추어졌던 비합리성이 20세기의 정치와 문화에서 드러난 것일 뿐이다³⁹⁾.

20세기 중반 정보 사회의 도래는 다양한 힘의 집

36) Mark. Poster, *Critical Theory and Poststructuralism* (N.Y.:Cornell Univ.Press, 1989), pp.105-106.

37) 서울 사회 과학 연구소, *맑스 프로이트 니체를 넘어서: 근대성의 이론적 비판*(서울: 셋길, 1997), p.48.

38) *Ibid.*, p.72.

단의 등장을 초래했고, 이 새로운 집단들은 이전의 부르조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지배 형태가 거부했던 중동들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해석 가능성, 인식 가능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다양한 남성 이미지를 출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 남성성의 형성은 남성, 서양, 상류 계층이라는 절대 권력이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비이성을 억압하고 초자아를 강조함으로써 형성되었으며, 비 전통적 남성성은 상대적으로 억압받아 왔던 여성, 제 3세계, 하류 계층에 의해 저항의 근거를 인간의 비이성적 측면들을 표현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 전통적 남성성은 이전의 절대 권력이 가졌던 기계를 통한 생산 수단이 정보로 변화하면서, 권력이 탈중심화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2) 권력 해체와 남성의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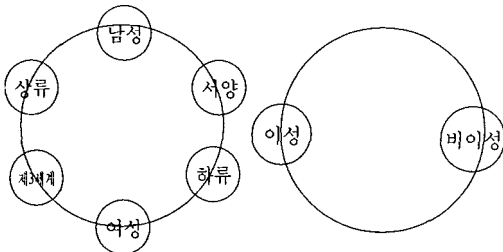
현재 하는 몸을 부인하고, 인체의 이상적인 미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표현하였던 과거에 비해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몸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⁴⁰⁾. 특히 최근에는 신체를 단순히 시각적 매체라는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 권력이나 이데올로기 및 정체성의 구조에 의문을 던지는 일종의 이론적 도구로서 미술사와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적극 도입되고 있다⁴¹⁾.

20세기 후반의 많은 잔혹한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가 재정의되었다. 이는 베트남전, 평화주의

자들의 집단적인 반전 운동, 프랑스에서의 1968년 5월의 항쟁 등에서 보여진 군인과 시민들의 상처 입은 신체들에 의한 것이었다⁴²⁾. 1968년 5월 항쟁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여성해방운동은 남성 이미지를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세상은 더 이상 선진국과 후진국, '자유세계'와 '공산주의 진영', 유럽과 그의 타자들 등으로 구별되는 명확한 지리적 영역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다양한 주체들이 내세운 남성의 몸이 제시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따라 스스로 순응적인 신체를 만들어간다. 백인이면서 이성애자인 남성 신체가 보편적 이상의 기준이기를 포기한 바로 그 순간 이전에는 억압받고 무시되었던 요소들을 자기의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세기 이래 서구 산업 사회에서 부르조아 계급이 강요하였던 전통적 남성 신체와는 달리, 현대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신체의 재현에 참여함에 따라 다양한 신체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다. 즉 하위문화집단들이나 여성들도 그들이 갖는 남성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타인종에 의한 남성 신체의 회화 속의 재현이 미술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 시키거나 거세함으로써(그림 8) 그 동안의 굴욕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하위문화집단들은 엘리트적인 이미지를 거부하고 병든 몸으로 표현하거나,

<표 3> 권력 해체와 인간 본성에 관한 수평적 사고



<그림 8> 거세충동(1920). *The Body*(1994), p.260.

39) Mark Poster, *op. cit.*, p.29.

40) 김용숙, *한림미술과 이대 기호학 연구소 위음, 몸과 미술*(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p.7.

41) Tom Flynn, *The Body in Sculpture* (London: Calmann & King Ltd, 1998), 김애현 (역), *조각에 나타난 몸* (서울: 예경, 2000),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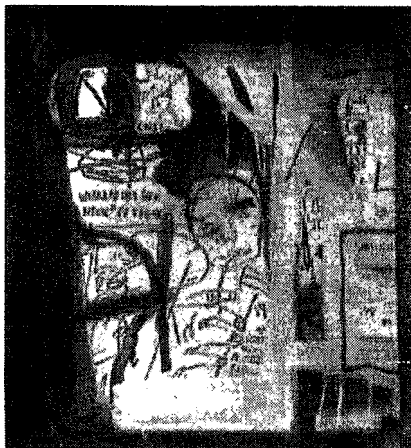
42) *Ibid.*, p.114.



〈그림 9〉 병든 몸의 표현(1983).
Womans Images of Men(1996), p.81.

자아도취, 자기과시 등 그 동안 거부되어왔던 특성들을 몸에 표현하여 자기만족감 혹은 동성애를 부추기는 등, 가치론적인 세계관을 거부하고 그들의 몸을 취약한 상태 그대로 드러내었다(그림 9). 또한 서양 계급주의적인 신체 즉 인종차별적 그리스적 이상에 반기를 들고, 다인종, 복합 인종 혹은 인종이 명기되지 않는 인체를 표현하기도 한다(그림 10).

현대적 의미의 해체된 신체들은 이상적 신체만을



〈그림 10〉 Basquiat의 하인없는 올림피아(1982).
Bodyscape : Art, Modernity and the Ideal Figure(1999), p.267.

재현해 왔던 19세기의 담론이 붕괴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3) 권력 해체와 남성의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19세기에 절대 권력에 의해 형성된 남성 이미지는 20세기 중반 이후 대중의 욕망과 이의 사회적 표현성이 인정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여가고 있다.

탈중심적 사고 체계 내에서 형성된 미적 이미지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 형성된 만큼 표현 의도도 다양하고, 표현 양식도 다양하지만, 이러한 스타일이 모두 이전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도한다는 점, 그리고 표현 양식의 근거를 절대 권력에 의해 억압되었던 인간의 무의식에 찾았다는 점 등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 기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을 받아왔으며 정보 사회의 도래와 함께 그 힘이 부각되기 시작한 여성, 제 3세계, 청소년, 게이, 경제적 하류 계층 등이 주체가 되어 형성한 남성의 이미지들에서 해방성, 관능성, 다문화성이라는 범주를 추출하였다.

해방성이란 이전의 절대 권력이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무의식을 억압하고, 초자아만을 강요하여 엘리트 의식을 고취시키던 것에 반발하여, 유아기 시절에 가졌던 자기만족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청소년, 게이 등의 하위집단은 절대 권력이 조작한 권위적인 남성성에 대한 거부의 표현으로 여성적 코드를 도입한다. 곡선적이며, 장식적이고, 화려한 색상과 곡선 무늬, 자연 무늬, 추상 무늬 등으로 여성의 특성을 암시한다. 또한 가볍고, 부드럽고, 얇고, 바삭거리면서, 표면에 광택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패션을 착용하거나 노출적인 패션을 채택하여, 스스로를 보고, 느끼고 즐겼던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고자 한다(그림 11). 또한 하류 계층과 여성해방론자들은 상류 남성 계층의 권력 과시적 패션을 조롱하고, 바지를 찢거나, 탈색을 시도하여 구식 옷처럼 만드는 등의 장식으로 하류 계층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신분을 과시하지 않은 빈티지룩을 유행시킴으로써, 그들의 무력하고 외존적인 이미지 자체를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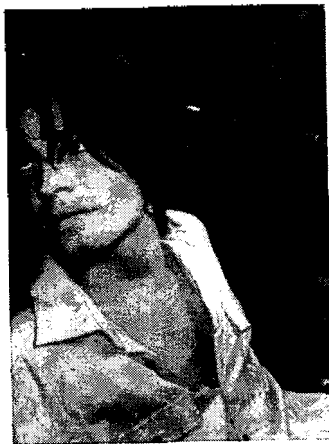
정보화 사회에서 비로서 남성의 관능성이 실현되고 있는 듯하다. 하위 문화 패션에는 전통적 남성성



〈그림 11〉 자기 만족적 이미지(2000).
l'uomo Vogue, March 2000 N.309, p.179.



〈그림 13〉 남성의 폭선을 이용한 관능성의 표현(1965).
The Men of Fashion(1997), p.10.



〈그림 12〉 무력한 이미지(2000).
DNR Vol.29 No.57 Friday May 14, p.44.

에 대한 거부로서 혹은 동성애적·페티시즘적 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의 X실루엣을 모방하여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폭선을 강조한다(그림 13). 내

부선은 장식적이고 눈에 두드러지는 디테일을 사용한다. 재질은 가볍고, 부드럽고, 얇고, 바삭거리면서, 표면에 광택이 있거나 재질이 도드라져 장식적이다(그림 14). 이러한 소재들은 페티시즘적 관능성을 표현한다. 또한 몸을 드러내는 신축성 소재나 속옷, 또는 이를 응용한 디자인 등은 사적인 공간을 연상시킴으로써 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⁴³⁾. 화장을 하고 섬세하게 다듬은 머리는 여성적인 의존성과 함께 동성애적 관능성을 표현한다. 〈그림 14〉에서 보여지듯이 비껴 앉고, 관람자의 시선을 회피함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성적 환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관능성은 모델이 의지가 제거되어 물화(物化)된 이미지가 존재하고⁴⁴⁾, 비로서 모델은 인공물이 되어 관객들은 그 대상을 조정하고, 그 대상에 대한 상상을 마음껏 펼 수 있을 때⁴⁵⁾ 표현되는 것이다.

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양은 더 이상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없었다. 다양한 민족의 삶의 양식은 패션에서 새로움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형태로 인체에 대한 사실적 표현에 반하는

43)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1994), p.119.

44) Jean Baudrillard, *La Societe de Consomation - 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물(역), *소비의 사회 - 그 신화의 구조* (서울: 문예 출판사, 1993), pp.198-200.

45) Sarah Kent & Jacqueline Morreau, *op. cit.*, p.116.



<그림 14> 페티시즘적 관능성(2000).
Arena, March 2000, p.119.



<그림 16> 문신의 패션화(2000).
Vogue, March 2000 N.309,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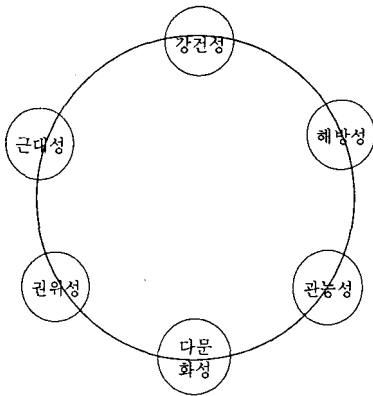
<그림 15> 의복과 신체 간의 공간 활용(1980).
DNR Vol.29 No.57 Friday May 14, p.90.

형태의 패션을 들 수 있다. 즉 <그림 15>와 같이 신체와 의복 간의 공간이 형성되고,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 실루엣이 변화하게 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실루엣은 주로 동양의 영향이다. 제 3 세계 문화의 영

향은 색채에서도 나타난다. 즉 다양한 유채색을 사용하며, 명도와 채도가 높다. 또한 대비 조화 등으로 색채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곡선 무늬, 자연 무늬, 추상 무늬 역시 타문화의 영향을 반영한다. 또한 문신은 제 3 세계의 문화 수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16> 모델로는 백인 이외에 흑인, 동양인, 혼혈인 등 다양한 인종, 복합 인종 등이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중반 이후를 기점으로 산업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중심적 사고 체계는 탈 중심적 사고 체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미를 형성하는 권력이 해체되면서, 이들 권력 집단이 호소하는 인간의 본성 역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명됨으로써, 다양한 남성성의 가치가 평가되고, 다양한 미적 이미지가 몸과 패션 위에 표상되고 있다. 즉 <표 4>에서처럼 남성의 미적 이미지에 관한 사고는 19세기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가치는 해체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 사회에서 성립된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의 이미지와 정보 사회에서 성립된 해방성, 관능성, 다문화성의 이미지가 공존하거나 융합된 형태로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표 4〉 권력 해체와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의 수평적 구조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권력이 남성의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다원주의적인 시각으로 분석함으로써 19세기 이래 획일적이고 변화가 느리던 남성 패션이 다양화되고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이란 새로운 생산 수단을 획득한 사람들이 권력 집단으로 등장하고, 이들 권력 집단이 인간의 본성을 통제함으로써 만들어낸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남성성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남성 이미지들을 권력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범주화하고, 이에 대한 조형 양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등장해 온 권력 집단은 그들의 권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다음과 같이 통제, 조절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산된 남성성에 대한 개념은 남성의 몸과 패션에 미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확산되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남성미를 표현하여 왔음이 드러났다.

〈표 5〉 권력 형태와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비교

	18세기	19세기~20세기 전반	20세기 중반 이후~2000년	
사회경제 구조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권력 양상	절대 권력	절대 권력	권력 분산	
권력 주체	군주	부르조아·남성·서양인	부르조아·남성·서양인	하류계층· 청소년· 여성· 제 3세계 인종 등
이미지	- 화려한 이미지의 궁중 복식으로 황실의 부와 권위 표현	- 남성적, 직선적, 단순한 이미지로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 표현	- 남성적, 직선적, 단순한 이미지로 권위성, 강건성, 근대성 표현	- 여성적, 곡선적, 장식적 이미지 도입으로 해방성, 관능성, 다문화성 표현
조형성	- 인체의 곡선미를 살리는 형태 - 장식적 디테일	- 가슴과 어깨 패딩, 날선한 배와 다리 표현 - 관절에 따른 부분 제작과 합체로 인체의 사실적 표현	- 가슴과 어깨 패딩, 날선한 배와 다리 표현 - 관절에 따른 부분 제작과 합체로 인체의 사실적 표현	- 신체와 의복 간의 공간 형성으로 동작에 따른 신체 실루엣 변화, - 신체 노출, - 장식적 디테일 등
색 채	화려한 색채	무채색	무채색	- 유채색, - 명도 채도 높음, - 색채 대비 조화
재 질	고급 견직물	면, 양모	면, 양모	시폰, 새틴, 레이스 등 광택이나 문양이 화려하고, 부드러운 견 또는 합성 직물, 저지 등의 신축성 소재

그러나, 이러한 이성애 의해 억압된 무의식은 전통적인 남성성의 해체를 요구하며, 충족될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을 좇게 하는 힘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에 억압된 비이성의 작용이 바로 패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남성성의 대안이 실현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억압 받아왔던 여성, 하위문화 집단, 제 3세계 민족들은 인터넷을 통해 19세기 이래로 지배 계급이 행하여 온 모순-성적, 계급적, 인종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갈망하고 있는 카오스적 열망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성 패션에 표현되는 이미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절대 권력이 해체되고 권력이 분산됨으로써 남성 패션에도 다양한 미적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해방성, 관능성, 다문화성 등이 대표적이다.

19세기에서 2000년까지 미적 이미지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때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가치 체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20세기 중반 이전의 권력 구조와 이들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가치, 그리고 이에 따라 형성된 남성성에 대한 관념 및 이들이 몸과 패션 위에 형상화되어 나타난 미적 이미지들에는 아분법적 대립의 논리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위계화된 대립을 낳았고, 중심과 변두리 간의 굳은 경계를 설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중심주의의 허구가 드러나게 되었고, 역사상 그 동안 주변으로 몰려났거나 지워졌던 것들이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작의적인 구조의 문제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권력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원적 대립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힘의 관계로서 사회의 전역에 걸쳐 있고, 다양한 힘만큼이나 다양한 남성의 미적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건욱 (1992). 미셸 푸코가 제시한 인간 제어 권력의 정보 사회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1993). 푸코 권력 이론의 여성 해방적 함의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 (1996). 빅토리아 시대 유행 복식과 반유행 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시찬 (2000). 미적 원리로서의 권력에의 의지에 관한 연구: 자아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1997). *맑스 프로이트 니체를 넘어서: 근대성의 이론적 비판*. 서울: 셋길.
- 이광래 (1995). *미셸 푸코*. 서울: 민음사.
- 이정민 (1998). 19세기 남성복에 나타난 탠디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림미술관·이대 기초학 연구소 엮음 (1999). *몸과 미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A. Hauser, 염무웅 반성완 공역 (1974).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근세편 下*. 서울: 창작과 비평사.
- Anne Hollander (1975). *Seeing through Clothes*. N.Y.: Avon Books.
- Anne Hollander (1994). *Sex and Suit*. N.Y.: Alfred A. Knopf.
- Anthony Brewer,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A Critical Survey*, 염홍철 역 (1982).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서울: 사계절 출판사.
- Calvin S. Hall.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지경자 역 (1993).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서울: 홍신문화사.
- Collin Mc Dowell (1997). *The Man of Fashion*. London: T&H.
- Diana de Marly (1985). *Fashion for Men*. London: B.T. Batsford Ltd.
- DNR. Vol.29 No.57 Friday May 14, 1999.
- Horn & Gurel (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J. Ashford (1996). *The Art of Dress*. N.Y.: Abrams Inc.
- Jean Baudrillard 이상률 역 (1993).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 Jennifer Craik (1994).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ledge.
- John Berger (1990). *Ways of Seeing*. 편집부(역). *이미지*. 서울: 시각과 언어.
- John Tosh (1994). 'What should historians do with masculinity? Reflection on the 19th century Britain', *History Workshop Journal*.
- Madan Sarup & Chung-Ying Cheng. 임현규 역 (1992). *테리다,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입문적 안내*. 서울: 인간사랑.
- Mark. Poster (1989). *Critical Theory and Poststructuralism*.

- ism*. N.Y.: Cornell Univ. Press.
- Michel Foucault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 Moers E. (1960). *The Dandy: Brummell to Beerbohem*. London: Secker & Waburg.
- New York: Pantheon. 홍성민역(1991). *권력과 지식*. 서울: 나남.
- Nicholas Mirzoeff. 이윤희, 이필 역 (1999). *바이스케이프*. 서울: 시각과 언어.
- P. Byrde (1992). *Nineteenth Century Fashion*. London: B. T. Batsford.
- Sarah Kent, Jacqueline Morreau. *Women's Images of Men*. 정소영 역 (1996).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 이미지*. 서울: 삼신각.
- The Face. No.29. June 1999.
- Toby Clark (1997). *Art & Propaganda in 20th Century: the Political Image in the Age of Mass Culture*. Calmann & King Ltd. 이순령 역 (2000). *20세기 정치 선전 예술*. 서울: 예경.
- Tom Flynn (1998). *The Body in Sculpture*. London: Calmann & King Ltd. 김에현 역 (2000). *조각에 나타난 몸*. 서울: 예경.
- Valerie Steel (1985). *Fashion and Eroticism*. Oxford: Oxford Press.
- William Ewing (1994). *The Body*. London: Thames & Hudson.